

곶자왈, 공공 목적 개발 '빚장' 풀리나

서귀포시, 사전 인·허가 협의회 구성 방안 마련 불허가 입장은 유지... 공공목적 한해 논의 진행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 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됐던 곶자왈에서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의 인·허가 여부가 논의된다.

12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곶자왈 내 공공목적 개발의 사전 인·허가 일괄협의회 구성을 담은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곶자왈) 공공목적 개발행위 처리방안'이 마련됐다.

현재 곶자왈 구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일부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관

리되고 있다. 2022년 기준 곶자왈의 전체 지대 면적은 95.1㎢로 보호지역 33.7㎢, 준보호지역(관리지역) 29.7㎢, 관리지역(원형훼손지역) 31.7㎢로 나뉘어 있다.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지역은 오염에 취약한 구역으로 폐수배출·폐기물처리·가축분뇨 배출 시설 등 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의 설치에 엄격히 제한되며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공공시설의 설치만 허용된다.

과거 개인주택이 오수처리시설을 갖춰 허가를 받은 사례가 일부

있었지만 2014년 곶자왈 보전조례가 시행된 이후 서귀포시는 곶자왈 구역에 해당하는 토지에서 건축허가, 태양광 발전시설, 개간사업 등 개발 및 전용 행위에 대해 일관된 불허가 입장을 이어왔다.

그러나 서귀포시는 최근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공공목적의 개발행위의 경우 인·허가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공공기관들의 요청이 이어지면서 공공목적 개발사업에 한 해 인·허가 여부를 논의하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개발행위 종류에 따라 사업 부서가 사전 공공성과 입지를 검토해 인·허가 일괄협의회 개최

를 결정하면 부시장 주재로 기획예산과, 친환경농정과, 청정축산과, 기후환경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도시과 등 관련 부서가 모여 회의를 진행한다. 이 회의에서 여러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시 보완 조치도 요구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제까지 법적으로 가능했던 인·허가 신청도 공익을 우선한다는 기초 아래 승인을 거절해 왔다"며 "이번 협의회 구성도 단순히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의미가 아닌 도민 공익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화북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재편 본격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공개... 25일까지 의견 수렴 소음·분진 업종 제한... IT 등 첨단산업 유치 검토

화북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이 공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화북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과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결정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지는 제주도 화북1동 2168번지 일원 화북공업지역 약 64만5928㎡다. 1970년대 조성된 화북공업지역은 삼화지구 등 인근 주거단지가 들어서면서 노후·열악한 산업환경 정비 필요성과 함께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 요구도 꾸준히 이어졌다.

제주도는 당초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이전 대체입지 검토도 추진했지만 지역 주민 반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업지역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이에 '2030 제주 공업지역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관리 방안을 바탕으로 산업과 주거가 공존할 수 있는 입주 업종 기준과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지구단

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항목과 범위,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절차다.

제주도는 소음·분진 등으로 주거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종의 신규 입지는 제한하고 정보기술(IT),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등 첨단 산업과 지식산업센터 등의 유치를 권장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북공업지역을 주거와 산업이 공존하는 관리 공간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열악한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대상지 외부 보행축과 화북공업지역 내부 연결체계를 구축하고 인근 공원·녹지와 내부 어린이공원을 연계하는 공원 녹지체계도 검토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오는 2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김재현기자 hakch@ihalla.com

공공근로사업장 현장 점검

제주시, 상반기 394개 사업 대상

제주시는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공공근로사업장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은 지난 2월 1일을 시작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이뤄진다. 현재 54개 부서·394개 사업에 총 862명이 참여해 청소·주요 도로변·공공시설 환경정비, 행정업무 및 각종 실태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근로계약서 및 출근부 작성 등 복무관리 ▷참여 신청기준 준수 ▷일묘아 시스템 등록 및 관리 여부 ▷사업장 안전관리 및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보완하도록 지도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부서별로 기한을 정해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지도·관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백금탁기자



12일 애월읍 새별오름 일대에서 '제주, 희망을 품고 달리다!'를 주제로 열리는 '2026 제주들불축제' 준비가 한창이다.

강희만기자

'불의 부활' 제주들불축제 개막

햇불대행진·달집태우기 시현... '디지털 불 농기'도

3년 만에 실제 '불의 부활'을 예고한 '2026 제주들불축제'가 13일 오후 7시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에서 개막식을 갖는다.

12일 시에 따르면 올해 들불축제는 지난 9일을 시작으로 14일까지 '제주, 희망을 품고 달리다!'의 주제로 6일간의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개막일인 13일에는 희망불 안치, 달집태우기로 희망의 시작을

알리고, 트로트 가수 김용빈이 무대에 올라 축제의 흥을 돋운다. 이어 폐막일인 14일에는 '희망의 찬가'를 주제로 전도공물대행진, 햇불대행진, 달집태우기, 디지털 불농기가 새별오름을 수놓을 전망이다. 오전 10시부터 새별오름 광장에서 인기 절정인 '새 봄 새 희망' 행사가 있다. 축제장에는 농수특산물장터, 오

름 등반, 마상마에공연, 민속체험, 읍면동별 경연대회 등 즐길 거리와 볼거리도 풍성하다.

13-14일 제주시 2개, 서귀포시 1개 등 3개 노선에 셔틀버스 70대가 운행한다. 제주시 1노선은 제주종합경기장 시계탑에서 출발해 한라대 입구를 거쳐 행사장까지 10-20분 간격으로 왕복한다. 제주시 2노선은 애월체육관에서 행사장까지 30분 간격으로 왕복 운행한다. 서귀포시 노선은 서귀포시청 제2청사에서 출발해 천제연 입구를 경유해 행사장까지 30분 간격으로 왕복 운행할 예정이다.

백금탁기자

전국·장애인체전 성공 개최 준비 만전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준공 박차... 임시 주차장도 조성

서귀포시가 오는 9-10월 제주에서 열리는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9월 11-16일)와 107회 전국체육대회(10월 16-22일)를 앞둔, 서귀포시종합체육관 준공 등 체육시설 정비를 비롯 교통·숙박대책을 수립해 본격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올해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기회로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스포츠 시설은 물론 교통·문화·숙박 등 도시 인프라 확충과 점검을 통해 본격적인 체전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장애인체전과 전국체전 개최 시기에 맞춰 오는 10월 준

공을 목표로 서귀포시종합체육관 준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귀포시종합체육관은 총사업비 499억5000만원을 투입한 지상 3층, 관객석 3095석 규모의 서귀포지역 최대 실내 체육관으로 3월 현재 공정률 56.7%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경기장 정비 이외에도 교통, 문화, 숙박, 위생 대책 등을 수립해 성공 체전 준비에 나서고 있다. 양대 체전의 개막식이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됨에 따라 경기장 주변 서호동과 법환동 부지에 2000여 대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국립종자원 인증 '무병묘' 생산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계장원농장

< 무병묘 > 2025년 **도내 최초!** 무병묘 총 3만주 농가 보급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6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1,5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인증묘입니다.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하레조생**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 포트묘 >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굴 유라조생 / 하갈 / 팔삭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종자업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010-4450-4316**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계장원농장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